

# 통일한국의 미래시대

민성길\*

## I. 통일의 목적과 과정

현재 한반도에는 통일에 대한 논의가 왕성하다. 그런데 통일은 왜 하려고 하는가? 아마도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지 않으면 통일논의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갖가지 혼란스러운 소리일 뿐이다. 필자는 그 대답을 ① 한반도의 평화와 ② 사람의 건강과 행복, 또는 안녕 상태(well-being, 행복 또는 복지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건강상태란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신체적 안녕, 정신적 안녕, 및 사회적 안녕이다(혹자는 여기에 영적 안녕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이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면, 이는 정치 경제적 사건일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사건이기도 하며 개인적 사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통일을 연구한 여러 보고서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 급격히 진행되었던 탓 때문인지, 현재 동서독인들 간에는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정신사회적적 갈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독일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장.

서는 이러한 통일의 정신사회적(psycho-social) 통일의 문제를 내적 통일(inneren einheit)라고 부른다.<sup>1)</sup>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하여, 우리의 남북통일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의견<sup>2)</sup>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 1. 평화와 건강

그렇다면,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가? 통일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또한 통일 후 과정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 필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평화”와 “건강”이라는 key word로 통일을 논의하고자 한다.

평화란 대결과 긴장이 없는 상태이다. 의학적으로는 긴장(tension)이 없는 이완된(relax)된 상태이다. 긴장은 상반된 요구가 공존(대결)할 때 나타나는 상태이다. 긴장은 유기체에 자극을 주어 경계경보를 발하고 각성시키며, “싸우느냐 또는 도망하느냐(fight or flight)”라는 상태에 몰아 넣으며 이때 에너지 소모가 일어난다. 긴장이 오래가면 결국 기능에 장애가 오게된다. 그 반대의 경우가 이완이며 이때 유기체는 다음에 있을지도 모르는 “싸우느냐 또는 도망하느냐”하는 상태에 대비하여 에너지를 비축한다. 이러한 상태가 평화이다.

- 
- 1) Böhm J., Brune J., Floerchinger H., Helbing A., & Pinther A, *Deutschen-Stunden. Was Jugendliche von der Einheit denken*, (Berlin: Argon Verlag GmbH, 1993); 전성우, “구 동서독 사회통합과정과 그 시사점,” 『통일경제』 11권, (1997); 각·한스 위르젠, “독일에서 온 편지,” 『조선일보』 1997년 1월 14일자; Genosko J., “Zwischenbilanz der inneren Einheit in Deutschland (독일 내적통일에 대한 중간결산),” 한국사회학회 편, 『민족통일과 사회통합』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9).
- 2) 민성길·전우택,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심포지엄 발표논문, (1995);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건강이란 무엇인가 하는 기준에 대해, 의학에서는 ① 보통(normal) 또는 평균(average)으로서의 건강, ② 병이 없는 상태(health)로서의 건강, ③ 이상(ideal)으로서의 건강 그리고 ④ 과정(process)으로서의 건강 등의 개념이 있다.<sup>3)</sup> 대개 병이 없는 상태가 현실적인 기준이지만, 가장 적절한 기준은 “과정으로서의 건강” 개념이라 보고 있다. 즉, 한때의 건강은 자만, 무지, 소홀로 인해 비건강으로 바뀔 수 있고, 비 건강 상태도 잘 인식하고 미리 적절히 대처하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보다 성숙한 건강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분단은 한 민족으로서는 비정상적 병적 상태이다 이 병은 많은 긴장과 고통과 힘의 낭비라는 증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창조의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하며, 이는 우리 한 민족의 전 세계에 대한 역사적 사명이다.

## 2. 발달과정으로서의 통일

우리의 통일문제도 이와 같은 과정의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비정상적 분단상태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 통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

통일은 사람과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학적 발달과정의 이론에 대비할 수 있다. 발달이론에 의하면 전 단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도 원만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장애가 생겼다면 그 원인 되는 발달단계에 까지 거슬러 가서 해결하고 다시 정상적 발달과정을 밟도록 해야 한다.<sup>4)</sup> 따라서 통일도 준비단계부터 잘 되어야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의 과정도 원만히 발달할 것이다. 또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과정을 거슬러 검

3)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제4개정판, (서울: 일조각, 1999).

4)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8).

도하여 발달상의 원인을 밝히고 그 수준에서 개선하여야 한다.

통일을 건강한 사회적 발달로 본다면, Erikson이 정신분석학에 기초한 정신사회적 발달이론이 연구에 하나의 틀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sup>5)</sup> 인간은 성장단계에 따라 다음 8단계의 정신사회적 성숙이 이루어져 간다.

영아기: 기본신뢰(basic trust)가 발달하나, 실패하면 기본불신(basic mistrust)이 발달할 위험이 있다.

유아기: 자율성(autonomy)이 발달하나 실패하면 수치와 의심(shame and doubt)이 발달할 위험이 있다.

학동전기: 진취성(initiative)이 발달하나 실패하면 죄의식(guilt)이 발달할 위험이 있다.

학동기: 근면성(industry)이 발달하나 실패하면 열등감(inferiority)이 발달할 위험이 있다.

사춘기: 정체성(identity)이 발달하나 실패하면 정체성이 혼란(role confusion)될 위험이 있다.

청년기: 친밀성(intimacy)이 발달하나 실패하면 고립(isolation)될 위험이 있다.

장년기: 생산성(generativity)이 발달하나 실패하면 정체(stagnation)될 위험이 있다.

노년기: 통합(integration)이 발달하나 실패하면 절망(despair)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전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스터되면 다음 단계도 성공적으로 마스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아기 때 어머니와의 기본적 신뢰가 이루어지면, 유아기 때 자율성이 잘 발달할 수 있고 다음의 진취성, 근면성 등이 잘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유아기 때 불신이 형성

---

5) Erikson E., 앞의 책, (1968).

되면, 이후 수치, 의심, 죄의식, 열등감 등이 발달하기 쉽다.

통일된 사회는 남북 사람이 모두 위의 긍정적·정신사회적 품성이 발달될 수 있는 사회, 즉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진취적이며 근면하고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으로 인간사이가 친밀하고 생산성이 높은 통합된 사회라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즉 서로 상대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한 다름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루어진 통일은 급격한 문화의 충돌에 의해 많은 혼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된다.<sup>6)</sup> 즉 사람들은 불신하고, 수치심과 의심 그리고 죄의식에 휩싸이고 정체성이 혼란 되고, 서로 친밀하지 못하며, 생산성이 정체되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난민에 대한 연구나 독일통일, 월남의 통일, 동구 공산주의 사회의 변화과정 등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사회변혁은 급성반응으로는 문화충격(culture shock) 현상을, 만성적으로는 정신건강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sup>7)</sup> 통일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불행해 진다면, 다시 분리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생겨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즉,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 3. 사람의 통일

그러한 실패를 피하기 위해, 통일은 잘 준비되어야 한다. 정치, 외교, 군사, 행정, 경제 등에 대한 통일(geopolitical unification)에 대한 준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는 사람들의 의식,<sup>8)</sup> 정체성 문

6) 민성길, “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문화충격과 적응문제,” 『통일이후』 1권, (1998a).

7) 전우택,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권 1호, (1997).

8) 이영선·전병재·함재봉,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 의식의 동질화 과제,” 『성곽논총』 제26집 별책, (1995); 이종석·김연철,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서울: 통일원 통일연구원, 1996).

제, 가치관, 행동방식 등 인간적인, 심리적 내지 정신사회적 문제 즉, “사람의 통일”<sup>9)</sup>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이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통일로서 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사람들이 모두 통일의 필요에 동감하고 통일에 열정을 가질 뿐 아니라, 통일하려는 상대방의 다름에 대한 이해와 용납 즉, 기꺼이 같이 어울려 살려는 의지와 양보와 노력을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의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정신적 능력”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인들은 지난 50여 년 간 전쟁과 적대적 대결 그리고 대화단절을 경험하여 왔으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도는 있다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그럴 능력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그 이유야 정치적 전략이든 자연발생적이든 그 동안의 대화단절과 악의적인 선전, 선동 내지 교육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히려 잘못된 심지어 반대되는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통일과정이 진행된다면 통일 이후에 새삼 정신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전체 통일과정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가능성은 남한 사회 내에서 이미 지역감정, 계층갈등 등으로 내부 혼란 내지 분열양상이 상당한 지경에 이른 것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9) 민성길·전우택,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심포지엄 발표논문, (1995);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10) 민성길, “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문화충격과 적응문제,” 『통일이후』 1권, (1998a).

## II. 미래 사회의 주역: 남북 청소년

이러한 관점에서 궁극적 사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잘 준비시켜야 된다고 필자는 믿는 바이다. 특히 통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통일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통일에 대비하여 미리 잘 준비시켜야 할 역사적 의무가 현재 어른들에게 있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필자는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남북한의 청소년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종합하였다.<sup>11)</sup> 즉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라 통일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때, 남북 간에 화해와 통합이 가능하도록 미리 어떤 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장차 그들이 만났을 때, 어떤 정신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남한에 많은 연구가 있어 이를 종합하면 되겠으나, 북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매우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탈북 청소년을 직접 연구하거나 탈북자들 자신의 청소년시절과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조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11) 민성길, “북한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개발연구 보고서, (1998b);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a); 최현·김이영, “청소년 성격 형성에 대한 남북한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 민성길·전우택·윤덕룡, “북한 청소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개발연구 보고서, (1998).

## 1. 남북간 청소년들은 다른가

남북간 청소년들은 다른가하는 문제는 결국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북한식 사회주의적 인간(또는 소위 주체사상적 인간)을 길러 내는데 성공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적 내지 자본주의적 인간을 성공적으로 교육하였는가”하는 것이다. 두 체제가 이 일에 모두 성공하였다면 남북 사람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만일 양 쪽 체제가 원하는 대로 인간형을 길러내지 못했다면, 남북간에 전통적인 공통적인 요소가 많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격발달에 대한 이론과 과거 역사와 현황을 종합해 보면, 남북간에는 인격발달이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어 왔을 것임은 당연하다.

## 2. 舊소련과 미국의 비교

남북한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해 舊소련과 미국의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비교연구나, 개혁·개방된 러시아 사회에서 舊소련 시절에 양육 받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어떤 적응을 하는가 하는 연구는 흥미있는 바이다. Bronfenbrenner는 *Two Worlds of Childhood*라는 연구에서 구 소련과 미국의 어린이 양육방식과 교육방식이 어떠하며 그 결과 어린이들의 인격발달이 어떠한가를 비교하였다.<sup>12)</sup> 구 소련에서는 가정에서 영아와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고, 어머니 이외 양육에 개입하는 사람이 많고, 아버지의 역할이 적고, 정서적 부하가 크고 그리고 사랑(관심)의 철퇴라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탁아소, 유치원 그리고 학교 등 공공교육기

12) Bronfenbrenner U., *Two Worlds of Childhood: US and USSR*,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70).



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집단의 일원으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하며, 그 교육방법도 철저히 집단적이었다(Child is to be brought up in the collective, by the collective and for the collective). 또한 사회주의적 교양(Communist morality)이 강조되는 바 즉, 노동을 중요시하고(학교 정원일, 사회노력봉사 등 현장 실습이 중요시됨), 집단(사회, 학교, 가정 등)과 권위에 대해 매우 순종적이고, 예의 바르며, 자제심(내적 복종)이 크고, 공동체의식이 강하도록 교육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인생에 대해 이상주의적 신념을 가지며(유물론적 이념과는 대조적으로), 친구관계가 매우 정서적이며(우정과 동지에의 강조), 개인적 경쟁보다 집단적 경쟁에 익숙하며(학교별 또는 지역별 대항 시험 등), 이타심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일탈행동이 적다고 하였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족중심주의, 친구들 세계의 압력, 보다 큰 융통성, 성인사회로부터 상대적인 독립 등이 특징인 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란다. Roger 등이 미국, 영국, 및 스위스 청소년들과 구 소련의 청소년들을 비교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구 소련의 청소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즉 청결성과 깔끔하고 질서 있고 예의바른 행동을 중요시하는 반면, 진실을 말하거나 지적이해를 추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서구 청소년들과 비교된다고 하였다.<sup>13)</sup>

그러나 구 소련이 러시아로 개혁·개방된 이후 구체제가 무너지는 사이 새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 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교육이 미처 이러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사이 청소년사회는 급격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즉, 가치관의 혼란과 비행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13) Roger R. R., Bronfenbrenner U. & Devereux E. C. Jr., "Standards of Social Behavior among Children in Four Culture," *Int J Psychol* 3, (1968).

### 3. 남북 청소년의 환경

#### 1) 가족

북한에서는 이념적으로 혈연, 지연 등 종파주의가 거부되고 있기는 하나, 엄격한 아버지와 헌신적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끈끈한 가족 간 유대 등 전통적 가족중심주의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진다. 남한에서도 이와 같은 전통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나, 보다 핵가족화 되고 있다. 최근 “기죽은 아버지, 자기계발에 열심인 어머니”같은 말이 유행하는 점이나 개인주의가 심해져서인지 가족 간 유대가 느슨해진 점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가족의 해체가 심화되고 있다.

부모의 훈육은 북한에서는 나가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라”하는 것인데 반해, 남한에서는 전에는 “차조심해라”였고 최근에는 “공부해라” 또는 “일등해라(경쟁에서 이겨라)”는 것이다.<sup>14)</sup> 부모의 자녀 교육열이 높은 것은 남북한 모두에서 공통적인 것 같다.

#### 2) 학교

북한에서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 모든 공공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내용뿐 아니라 교육방법까지 일관되게 획일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교사는 사회적으로 대우와 존경을 받는 편이며, 대개 교육에 헌신적이다. 교육내용에서는 사회주의적 이념과 사상, 사회주의적 교양(규범), 충효사상, 金父子 개인숭배, 남한 괴뢰정부와 미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 등이 강조된다.

자아비판(생활총화)은 북한에서 전 사회조직에서 시행되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는 학교에서도 중요한 교육수단이 되고 있으나 거의 형식적 반복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남의 눈에 보이는 형식적 도덕성은 불균형적으로 과도하게 발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훈육방

14)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a).

식 중 하나의 특징은, 북한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하듯 질책과 단체기합이 많다는 것이다.<sup>15)</sup> 학교 밖 사회활동도 매우 중요시된다. 학생들은 집단적으로 사로칭 등 학교 밖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군중대회, 농촌봉사 등 사회행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비해 남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교과들이 교육되고 있으며, 교육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경쟁적 입시위주의 교육에 희생되고 있고, 과외공부, 학부모의 간섭이 많은 점 등 불균형적으로 되고 있다. 교사는 헌신적이라기보다 직업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고 있다. 아이들도 말을 잘 듣지 않아 수업이 잘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교실붕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 3) 친구관계

북한에서는 친구사이의 우정과 의리가 중요시된다. 인기있는 친구는 집안성분이 좋고 싸움을 잘하고 남을 잘 돕는 의리 있는 친구이다. 대개 두목을 중심으로 패거리를 형성하여 다른 패거리와 대결하는 수가 많은데, 이러한 북한식 계급의식과 “자기 사람 봐주기(공동체적 연줄, 관료적 신민)”는 어려서부터 익숙하다.

이에 반해, 남한에서는 친구관계가 실용적, 경쟁적, 개인주의적이다. 친구를 위한 희생정신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패거리의 형성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일부 비행청소년집단에 한정되어 있는 수가 많다.

### 4) 사회

북한은 교조적 사회주의 이념, 독제와 통제, 집단주의, 지도자 개

---

15) 민성길, 앞의 책, (2000a).

인승배, 내외의 정보차단과 왜곡, 선전선동, 계획경제와 배급제도 등이 특징으로 보인다. 체제성과 자존심유지를 위해 이념의 강제학습, 그리고 합리화(rationalization)과 투사(projection)(대남 비방, 대미적대 행동 등 잘못 인도되는 열정과 공격성의 통로화) 등 주로 된 국가차원의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의 동원 그리고 우민화, 생활의 단순화, 정보와 자극의 차단 등 감각박탈(sensory deprivation)을 시도되고 있다. 또한 편파적 배급제도에 의해 주민 기들이기(conditioning)를 시행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특히 흥미 있는 바는 사회주의 사상이 충효와 같은 전통사상과 결합되어 특이한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는 북한사람들은 개인적인 가족주의와 종파주의는 배격되나, 국가적 차원이 된 가부장적 체제가 강요되고 있고, 가족적 “성분”에 따른 새로운 북한식의 계급사회, 공동체적 연줄(communal crony)사회, 관료적 신민(臣民)(bureaucratic subjects)이 북한의 특징이 되고 있다. 최근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을 고집스럽게 시행한 결과, 빈곤이 찾아왔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 삶의 질 저하, 사회부패현상 등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북한사회는 광범위한 빈곤과 폭력성이 결합된 사회로서 통제와 연줄에 의하여 안정되고 강해 보이나, 내면적으로는 긴장이 높은 무기력한 공동체적 사회로 보인다.

남한사회는 독재, 학생혁명, 군사혁명, 군사독재, 민주화, 세계화 등 정치적 변혁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국가의 통제나 재벌경제, 최근의 시장개방 등 변화가 많았다. 전통적인 근면성, 높은 교육열, 그리고 근대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 역동성으로 결국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고, 현재는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기게 되었다. 동시에 황금만능사상, 시장적 인격(marketing personality), 줄부근성, 부정부패도 나타났다. 또한 점진적으로 소비자 운동, 환경운동, 남녀평등운동, 노동운동 등이 발전해 왔으며, 사상적으로도 다양한 종교 뿐 아니고 다양한 철학사상이 소개되고 있다. 실제 생활에

서 사람들은 입시경쟁, 취직경쟁, 돈벌기 경쟁, 힘을 갖기 위한 경쟁 등 경쟁으로 긴장이 높아 정신건강상의 문제(스트레스, 음주, 성인병 등)가 많다. 간접적으로도 도시화, 빈부격차, 인간소외현상, 사회부패, 범죄증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사회는 자유민주사회의 다양성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연고주의 등 전통문화적 병폐가 여전한 가운데, 방만한 개인주의와 격심한 경쟁(입시경쟁, 취직경쟁, 돈벌기 경쟁, 최근의 남녀간 경쟁 등),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가중된 고통을 겪고 있다. 북한과 비교하자면 부유하고 자유로우나 개인주의와 경쟁이 심한 불안정한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 4. 청소년발달

##### 1) 북한

정신성적 발달에 있어, 북한에서는 자극의 결핍과 영양장애로 인해 신체발달의 지연과 더불어 정신성적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sup>16)</sup> 체격도 작고, 초경도 늦게 나타나고 있다. 성은 대체로 죄악시되고 있으며, 성교육이 없어 성에 무지하고, 데이트나 성행동의 시작도 지연되고 바람직한 신체상으로 통통한 체격이 선호된다. 전반적으로 동성친구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잠제기(latency)가 연장되고, 따라서 남녀구별이 심하고, 불평등관계가 뚜렷하다. 사춘기적 정체성 문제는 정신성적 발달이 지연됨에 따라 지연 발생하며, 그나마도 가족성분에 따른 한계, 군대입대, 및 국가에 의한 직업결정 등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조기에 체념되고 있다.<sup>17)</sup>

16) Freud S., *The Dissolution of the Oedipus Complex*, (London: The Hogarth Press, 1924).

17) 민성길·전우택·윤덕룡, “북한 청소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개발연구 보고서, (1998).

정신사회적 발달에 있어 공산주의 국가 특유의 조기 집단양육과 모성의 결핍 등이 인격발달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연구된바 없고 추측하기도 어렵다.<sup>18)</sup> 단지 구 소련에서의 연구와 탈북자연구를 종합할 때, 8단계설에서 말했듯이 불신, 의심, 자율성 부족, 열등감, 정체성문제 등이 비교적 많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sup>19)</sup> 이러한 성향들은 잠복기적 특징인 집단적 경향과 북한사회 특유의 폭력성과 연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인물도 집단적, 폭력적 인물로서 사회적 영웅, 전쟁영웅, 싸움 잘하는 친구 등이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바, 요즈음의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은 돈버는 직업(무역일꾼이나 장사 등), 연예인, 멀리 여행할 수 있는 직업(기관사, 운전자) 등 자유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이행하는 변화의 조짐이 있다. 북한은 특히 종교가 거부되고 있어, 종교적 가치에 대한 개념은 거의 발달할 수 없다.<sup>20)</sup> 오히려 주체사상이 북한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sup>21)</sup> 탈북자들은 남한 기독교의 예배형식이 북한에서 강요된 김일성 숭배를 기억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지발달에 있어 북한 청소년은 폐쇄사회, 정보부족, 획일적 이념교육, 순응의 습관(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에 길들여 있어 창의성의 결여되어 있고, 무지하고 단순한 편이며 세계관도 편협하다.<sup>22)</sup> 이러한 상태는 결국 북한 사회의 이념, 사회체제와 문화, 교육 그리

18)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8).

19) Brofenbrenner U., *Two Worlds of Childhood: US and USSR*,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70); 민성길, “북한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개발연구 보고서, (1998b);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20) 민성길, “북한사람의 삶의 질,” 『통일연구』 4권, (2000b).

21) 박명철, “주체철학의 이해와 평가,” 연세대학교 세미나, 1999년 11월 22일.

22) Inhelder B. & Piaget J., *The Growth of Logical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Wiley, 1958).

고 정보교류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 과정 중에 있어 주어졌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incorporation, introjection, internalization, identification)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핍하고 폭력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어찌됐든 살아남으려는 북한사회 특유의 적응능력은 불균형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도덕적 발달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이상(ideal)의 강조와 생활 총화라고 부르는 자아비판 때문에 사회적 초자아가 비대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는 개인적 양심의 가책 없이 사회적 부패에 순응하거나 편승하는 이중적 도덕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 2) 남한

남한청소년들은 대체로 신체적으로 체격은 커졌고 성적으로도 조속해 졌으나, 체력적으로는 허약해지고 있다.<sup>23)</sup> 정신성적으로도 조속하여 성교육도 각급 학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자극도 많아 성 경험이 일찍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성적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 신체상에 있어서도 서구적인 마른 몸매가 선호된다.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어 남녀불평등 구조가 많이 개선되어 각계 각층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다. 그리고 서구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소위 정체성위기가 뚜렷하다. 한편 장기간의 교육에 따라 부모에의 의존기간이 길어져 소위 유예기간(moratorium)이 연장되고 있는 것 또한 최근 사회현상의 하나가 되고 있다.<sup>24)</sup>

정신사회적 발달에 있어, 북한의 집단적 경향에 비해 남한 사회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또한 어려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고 있어 그 인지발달이 촉진되고 있다고 보겠으나, 한편 너무 조기에 공부를 강요하는 격심한 경쟁적 상황은 또 다른 역기능을 초

23) 교육부, 『청소년 체격조사』(1998).

24)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a).

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남한에는 전통적 무속 뿐 아니라 다수의 세계적 종교들이 활동하고 있어 다양한 종교경험이 가능하다. 심지어 사이버 종교까지 활발하다.

남한사회는 정보가 넘쳐나며 특히 최근에는 영상매체, 이동전화, 인터넷 등의 유행으로 전지구 차원에서 다양한 자극이 주어지고 있어 인지발달이 특이하게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가치관이나 행동방식도 개인주의적 방향(마니아, 컬트 등) 내지 경제 원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덕적으로도 단순치 않고 청소년 특유의 이상주의, 죄의식, 양심, 비판의식, 반항, 적응 등 다양한 모습이 관찰된다.<sup>25)</sup>

### 3) 사회적 비행

북한에서는 청소년비행이 비교적 드물다. 있어도 꽤거리 지어 꽤싸움하거나 같이 먹을 것을 훔쳐 나누어 먹는 행동 정도이다. 이런 행동은 대개 집단압력이나 가난 때문이며, 간혹 집안성분이나 체제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 청소년의 세계는 북한 전체의 분위기와 같이 폭력적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 때문인지 젊은이들의 꽤싸움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한다.<sup>26)</sup> 반면 남한에서는 점차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 폭력이외에도 물질남용(담배, 술, 흡입제 등), 성적 비행, 문화파괴행동, 가출 등이 비교적 많다.

## III. 통일 후 예상되는 갈등

통일 후 예상되는 갈등이란 통일 후 대규모의 사람들의 만남에서 드러나는 갈등이다. 그리고 이는 어려서부터 자라는 동안 영향 받아

25) 민성길, 앞의 책, (2001a).

26) “함남 함흥, 함북 무산 등 젊은이 꽤싸움 줄었다,” 『조선일보』 2002년 4월 17일자.



왔던 사회 문화적 요소, 즉 가정환경, 체제와 문화의 차이, 경제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인격발달(가치관, 행동방식, 언어 등) 상의 차이와 Erikson이 말한 정신사회적 계 문제들 즉, 불신, 의심, 자율성, 주도권, 열등감, 정체성, 친밀성, 생산성, 절망 등이 얼마나 발달하였는지에 달려 있다.<sup>27)</sup> 그리고 이는 앞서 말한 적대적 경험에 의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금까지 역사적 경험이나 독일 통일의 과정과 비교해 볼 때,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있었고 지난 50년 간의 대화단절이 있었으므로 보다 첨예하게 갈등이 나타날 것 같다. 이러한 갈등은 남북 사람들의 직접적 접촉이 일어나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하나의 방법으로 탈북자 연구가 있다.

### 1. 탈북자 연구

탈북자들이 전체 북한 사람들을 대표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모습이나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장차 통일 후 나타날 수 있는 갈등양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적응을 돕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일 후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8)</sup>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느끼는 차이는 남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서로 이해하기 힘든 당황스런 상태로서 향후 통일 후 대규모적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갈등은 “집단적”으로 증폭될 것이다. 갈등이 얼마나 심각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sup>29)</sup>

27)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8).

28) 전우택·민성길, “탈북자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29) 민성길, “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문화충격과 적응문제,” 『통일이후』 1

흔히 탈북자연구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탈북자는 남한사회를 그리고 남한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30)</sup> 북한사람은 “사회주의적 인간성(순수함, 선량함(goodwill), 희생정신을 강조하는 것 같은)을 중요시하므로, 남한의 영악하고 욕심 많고 경쟁적인 자본주의적 정신과 부딪치면, 북한사람이 크게 손해를 볼 것으로 예단할 가능성이 크다. 선량함과 가난은, 영악하고 탐욕이 많은 상대에게 피해보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난함(경제적, 정보적, 정서적)은 그 동안의 정치적 선전에 의해 적대적 남북관계와 국제냉전질서 속에서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신념의 대가로 믿기 때문에, “피해자의 논리”로 완고하게 합리화 내지 투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서 지금 보이고있는 “요구만 하는 태도”는 이러한 편집증적인 피해의식과 완고성의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남북대결과 국제적 냉전질서의 상황에서 발달된 투사의 기전에 의해 생겨난 편집증적 피해의식은 통일이 되더라도 사소한 갈등을 예민하게 국가차원의 갈등으로 증폭시킬 소지가 크다.

이러한 예상은 현재 남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간의 갈등,

---

권, (1998a).

- 30) 민병천,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0);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1994);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1995); 박종철·김영운·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전우택·민성길, “탈북자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 “북한탈북자들의 남한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권 1호, (1997); 전우택·윤덕룡·민성길, “보호 경찰관의 탈북자 지원경험 분석,” 『신경정신의학』 40권, (2001a); 전우택·윤덕룡·민성길, “남한 비정부기구(NGO) 소속 자원 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미발표 논문, 2001b).

노사갈등, 지역 간 갈등, 세대간 갈등 등이 얼마나 심각하며,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러한 공격적이며 “억울해 하는” 피해의식의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비관적인 예상이 든다. 이 역시 우리 공동의 역사적 유산이 아닌가 한다.

## 2.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연구에 의하면 탈북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남한 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아직 어려 유연한 발달과정 중에 있고, 학교생활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 있고 또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의 신세대의 문화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금방 친구도 사귀고, 남한 청소년들처럼 머리를 물도 들이고, 인터넷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자동차에 환호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공부나 직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며,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설계한다는 의지와 태도가 돋보인다. 그들은 같은 북한 출신으로서 남한에서 크게 성공한 기업인인 정주영씨처럼 성공할 희망을 피력하곤 한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정은 보다 돋보인다.

한편 남한 청소년과 달리, 탈북 청소년들은 권위에 순응적이며, 존경을 표하는 태도라던가 사회에 무언가 공헌하려는 태도, 친구들과 사이에서 이타적인 태도는 보다 돋보인다. 그들은 순응적 태도는 소수의 이방인이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남한친구들이 타산적이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당황함과 실망을 느낀다. 북한에서는 친구라 하면 웬만한 부탁은 자신의 희생해서라도 다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나, 남한 친구들은 싫으면 싫다고 냉정하게 거절하여, 처음에는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 3. 적응장애의 경우

최근 청소년 탈북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청소년에서 적응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흔한 이유는 남한 청소년들로부터의 놀림(키가 작다, 촌스럽다, 로봇같이 움직인다 등), 고립과 차별 등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거나, 더 심한 경우 대안학교 또는 심지어 가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성인 탈북자들은 한 조사에서 이를 가치관 차이(25.1%), 자유의 개념에 대한 차이(22.7%), 문화와 사고방식 차이(16.6%), 경제수준의 차이(12.3%), 경쟁이라는 개념의 차이(7.4%) 때문이라 하였다.<sup>31)</sup> 그러기 때문인지 어른의 경우이긴 하지만, 남한에서는 학연, 지연의 장벽이 너무 커서 남한에서 살기 어려워 오히려 외국으로 나가기로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sup>32)</sup>

## IV. 통일의 과정

### 1. 과거의 청산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청산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친일파 문제, 전범 문제, 부역문제, 독재체제 참여 등 과거 청산문제가 첨예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물론 재판과 처벌, 그리고 보상 등으로 이일에 대처할 수

31) 민성길, “북한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개발연구 보고서, (1998b);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a).

32) “북 탈출보다 한국적응이 훨씬 힘들어 외국으로,” 『조선일보』 2002년 4월 16일자.

도 있었으며, 실제 북한에서는 일찍이 이런 식으로 해결하여 그 나름대로 도덕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남한사회에서는 그 처리가 미진하여 아직도 이 문제가 내연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래 통일한국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남한 사람은 북한에 대한, 그리고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 오해, 편견을 버려야 한다. 특히 이태올로기에 기초한 선입견, 냉전구조에 기초한 편견, 경제적 격차에 근거한 오해 등을 극복해야한다. 북한도 우리와 같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며, 사람이라면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다 같은 인격과 정서를 가지고 있어, 나름대로 그 주어진 문화에 적응하고 살아 남기 위해 애쓰는 사이, 원하던 원치 않든 특정한 인격성향이 발달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50년간의 적대적 관계에서 서로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선택으로 Maaz가 독일의 경우에서 제시한 바, 고백, 이해, 용서, 보상, 화해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sup>33)</sup>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는 감정의 해방 즉, 정화(catharsis)와 감정이입적 동일시(empathetic identification)라는 정신기제를 통해 과거로부터 연유한 억압된 감정을 청산할 수 있다.<sup>34)</sup> 이는 동정심(symathy)과 유사한 개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감정이입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유지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화합하나, 동정심에서는 상대방과 같은 감정의 늪에 빠져 자신의 정체성과 객관적 입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 2. 의식의 동질화 과제

33) Maaz H.-J., *Der Gefühlsstau*. (Berlin: Argon Verlag, 1990).

34)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제4개정판, (서울: 일조각, 1999).

오랜 분단기간 동안 다른 사회문화체제에 적응되어온 남북사람들을 통일된 한국 사회에 맞는 시민으로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정치체제, 법 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등을 통합하는 일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일반 시민의 의식을 통일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이루어 질 일이 못된다. 이러한 의식을 어떻게 동질화 할 수 있는가?

우선 공통점은 없는지 연구해야 한다. 공통점은 살리고 차이는 줄일수록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 청소년 모두에게 민족애가 강하고 각각의 나라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남한청소년은 미래사회에 대해 낙관적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통점을 근거로 통일사회에 대한 이상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 교육을 중시하는 경향, 민족애, 술 좋아하는 것 등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연구한다면 더 많은 공통점이 발견될 것이다.

사회문화적 내지 정신적 통합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다.<sup>35)</sup> 특히 차재호는 심리적 갈등의 해소방안으로 강자의 강압에 의한 타협과 합의에 의한 규범화, 약자가 강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동조, 약자가 강자의 양보를 받아내는 혁신의 방식 등 세가지를 들었다.<sup>36)</sup> 이영선, 전병재 및 함재봉은 남북한간에 의식의 동질화를 논하면서 정치의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사상을 매개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전통사상 속에서 발견되는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과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정치의식화

35) “남북한 체제변화 과정과 주요 사회적 관행의 변동양상,”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서울: 한국정신문화원, 1994); 안찬일, “남북한 사회이질화 현상극복에 대한 소고,” 남북사회문화연구소, 북한 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세미나, (1997);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 통일과 사회통합: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미래』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9).

36) 차재호, “통일에 있어 심리적 통합의 전망과 과제,”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2000).

함으로서 한국적 공동체의식을 창안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37)</sup> 사회의식에 있어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인간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개발을 도덕·윤리적 차원에서 이루어 나감으로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탈소외론과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물질적 풍요가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의식면에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생산과 더불어 분배상의 문제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족될 수 있도록 하는 복지형 시장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모두를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는 경제협력과 시민교육을 통해, 상호 제도를 이해하게 되고, 민주주의적 절차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두 사람다운 삶, 인간주의적 사회공동체의식, 복지형 사회복지제도로 요약되는 바,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에 입각하여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3. 다름에 대한 이해와 용납

한편 과연 의식의 동질화에 중요성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남북은 많이 다르다. 그런데 이를 무리하게 동질화하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고집스럽게 지키고자하는 이질성을 억지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방식은 새로운 갈등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사회문화적 통합에 있어 남한이 남한화(식민화)를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냉전구조를 고집하지 말고,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를 보이지 말

37) 이영선·전병재·함재봉,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 의식의 동질화 과제,” 『성곡논총』 제26집 별책, (1995).

고, 천박한 군중 선동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남한이 보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역량의 차이를 줄이고, 상호 인정하여(상호주체성), 통합의 기초를 증진시켜야 원만히 성숙된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sup>38)</sup>

이와 같이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양성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 되고 있는 것만큼, 다름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한 용납하여야 할 것이다. 이질성을 일단 용납하고 점진적으로 동질화로 나아가자는 의견도 있다.<sup>39)</sup> 한국 사람이 유난히 단이 민족을 주장하는 바, 현대사회에서는 민족동질성이란 이미 신화에 불과하다는 논의마저 있다.<sup>40)</sup> 따라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체성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즉 남한사람에게는 정체성이 훼손되는 느낌과 더불어 두렵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겠지만 북한을 기꺼이 받아드리는(actively mourning)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동질화는 역사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 4. 상생의 원리

다름에 대한 연구는 또한 남북 사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으로 이어져야 한다. 단순히 사회주의 국가의 장단점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북한 사회의 장단점을 연구해야 한다. 북한사람에서 보는 나쁜 점이 남한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남한의 좋은 점이 북한에

38)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 통일과 사회통합: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미래』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9).

39) 김문환, “이질성을 용납하고 동질화로 나아가자,” 『조선일보』 1995년 8월 6일자.

40) Grinker R., *Korea and its Future: Unification and Unfinished War*, (London: McMillan, 1998, 한사랑민족통일 1998년 8월호에서 인용).



도 있을 수 있다. 북한사회에는 우리 남한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또는 잊어버리고 있는 무엇을 갖고 있지 않은지, 또한 남한 사회 자체 내지 시장경제나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버리거나 극복해야 하는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한쪽이 다른 한쪽의 부족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으면, 이는 모두가 이기는 상생적 전략이 되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은 대화와 정보교류를 통해 이러한 장단점을 서로 알고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함으로서 상생의 원리가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sup>41)</sup> 흔히 동서독에 관해서는 서독은 부유하나 불안정하고 비인간적 사회라는 평가가 있고, 동독에 관해서는 가난하나 안정되고 인간적 사회라는 평가가 있는바, 이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sup>42)</sup>

동질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동질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부를 동질화하려고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에 따라 어떤 것들은 다른 채로 남겨 둘 수 있는 아량과 융통성도 있어야 한다. 즉 이질성과 동질성이 평화공존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다양성이 보장될 때 상호 자극과 보완이 가능하여 보다 큰 발전이 가능해 질 수 있다.

##### 5. 남한도 변해야 한다.

남한사람도 반성해야 한다. 남한에도 결핍되고 빈곤한 것이 없는가? 50년 간 빠르게 달려오면서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남한 사람에게도 과연 자존심이 있는가, 감정적으로 “과거의 죄”로부터 정화되어 있는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남한사회의 체제가 과연 진정으로 자유

41) 민성길, “총론-결핍과 보완, 그리고 상생,” 『대한의학협회지』 44권, (2001).

42) 전성우, “구 동서독 사회통합과정과 그 시사점,” 『통일경제』 11권, (1997).

민주주의적인가? 남한사람은 질서있고, 정직하며, 성숙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반성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과연 진정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한사람은 북한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서독사람들이 동독사람에게 대하듯이,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을 이등국민으로 본다든지, 통일을 통해 북한을 남한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남한 사람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기회로 본다든지, 북한을 남한의 식민지화하려 한다거나, 굴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이를 단연코 버려야 한다. 북한에 대해 공격적으로 체제 통합으로 나아가려 하면 북한 사람들도 정서적 자존심 때문에 저항을 시도할지 모른다. 연변지역에서 남한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든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만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진정한 속마음을 들어내는 대화와 화해가 가능해 진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이를 기꺼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그 특유의 생존전략 때문에 오래 동안 폐쇄적이었고, 통제적이어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서적 생활, 그리고 인격발달(성숙)에 있어 많은 것이 제한되어 왔다. 즉 결핍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최근 경제적 궁핍 때문에 전반적 결핍상태는 심화되고 있다. 남한은 이를 이해하고, 민족우선 차원에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양보하고 인정과 물질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북한의 임신부와 소아에 대한 식량공급은 인도주의적 차원 뿐 아니라 미래 통일 한국의 생산성이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시급하다. 나아가 손상된 자존심의 회복, 차이가 심한 삶의 질의 부분에 대해 균형적 발전이라는 궁극적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잠재력이 피어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V. 미래세대의 준비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북한 청소년들은 신체 발육과 인격 발달이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가난, 거친 생활 그리고 정보부족의 상태에 있으면서, 대체로 이념적이고(사상성이 강함), 권위에 순응적이고, 집단적이고, 단순하고, 이타적이고, 복종적이고, 우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남한 청소년들은 신체적(체격은 크나 허약함)으로나 인격적으로 조숙한 편이며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 그리고 정보과잉의 상태에 있으면서, 실제적, 실용적, 시장적, 경쟁적, 개인주의적, 이기적, 의존적, 반항적인 인격특징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북한 사회의 이념, 사회체제와 문화, 교육 그리고 정보교류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과정 중에 있어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incorporation, introjection, internalization, identification)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현재의 남북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미래 통일한국 사회의 시민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1. 희망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다. 그들은 어리며 발달과정 중에 있어 특유의 새롭고 다른 것에 관한 호기심과 모험정신, 풍부한 상상력, 창의성이 있어, 교육하기에 따라 우리가 바라는 통일사회에 맞는 시민으로 양육할 수 있다.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민족 문화전통도 이 새로운 한국인 양성에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시급한 대책 중의 하나

북한 어린이들이 만성적 영양부족에 고통받고 있음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EU, UNICEF 및 세계식량기구(WFP)의 보고에서도 보듯이 현재 북한에서는 심한 만성적 식량부족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만성영양장애의 고통 속에 있다.<sup>43)</sup> 즉 어린이의 62.3%가 성장장애를, 60.6%가 저 체중, 그리고 3%가 단백질 부족에 의한 부종에 시달리고 있다. 영양부족은 신체발육 뿐 아니라 뇌 기능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정신기능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sup>44)</sup> 이는 국가 장애에 대한 문제이므로 더 늦기 전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이 공급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지원도 시급하다. 조남훈에 의하면, 모성사망률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39명에까지 이르는 등 생식보건 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다고 한다.<sup>45)</sup>

국민의 신체적 건강, 우수한 정신적 기능, 그리고 인구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너무 늦기 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 3. 새로운 시각의 통일교육

결국 통일한국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교육이 중요하다. 즉, 현재 남북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래의 통일사회를 위하여, 남북 각각의 체제유지나 자란을 위한 것이 아닌, 화합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각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학자를 포

43) EU, UICEF, WFP, "DPRK Nutrition Survey: A Study Undertaken in Collaboration with Government of DPRK," (1998).

44) Politt E. & Oh S., "Early Supplementary Feeding, Child Development and Health Policy," *Food Nutr Bull* 15, (1994).

45) 조남훈, "북한의 생식보건 실태," 『의협신보』 1998년 5월 28일자.

함하여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즉 모든 교육수단을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새로운 통일철학

남북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통일이 왜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좋은지를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분단과 분열이란 결코 건강하지 못한 상태, 병적인 상태로서 고통과 퇴행(발달의 반대) 그리고 비생산적인 낭비라는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통합과 화합 그리고 단결이 건강과 안녕을 이룰 수 있고 그 래야 성숙과 창조적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조사에 의하면 남한 청소년들이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이다. 유도진에 의하면, 남한에서는 91.8%에서 화제 거리가 되지 않는 정도로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한다.<sup>46)</sup>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 의하면, 1,700명의 청소년 중 통일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14.7%에 불과하고, 반면 관심이 없거나(37.1%) 있더라도 멀게 느껴지는 경우(48.2%)가 많았다.<sup>47)</sup> 그 이유는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다. 흔히 “통일하면 가난해진다”, “북한은 무서운 나라이다”, “북한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어린이들이 말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해 열정적이며, 실제 자기들끼리의 대화에서도 통일이나 남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sup>48)</sup>

### 2) 상대방에 대한 이해

46) 유도진, “청소년 조사” 『조선일보』 1997년 11월 25일자.

47)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 (1990).

48) 민성길, “북한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개발연구 보고서, (1998b).

상대방에 대한 지금까지의 증오, 적대, 무지,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점이 다르며, 어떤 점이 나쁘고,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인간 보편적인 행동과 인격에 대한 이해, 학습과정과 인격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의 특정문화에 의한 영향, 즉 사회체제가 인간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생존(survival) 전략과 적응(adaptation)과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 과정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empathy)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문적 연구자의 몫이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적절한 수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 교과목

북한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특히 미지의 외부세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경쟁사회, 자율적 및 독립적 인간 등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 사회의 생활방식, 가치관, 인간관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남한 청소년들에게는 북한 체제, 공산주의(사회주의), 계획경제 등에 대해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전에 이미 장기간의 교류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 동독 청소년들이 통일 후에 빠른 적응을 보였다는 평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인 탈북자들에게 설문조사 결과, 남북한간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하였다.<sup>49)</sup> 즉, 남한에서는 서구문화와 황금만능주의의 영향력을 줄이고, 통일과 민족에

49) 민성길, 앞의 글, (1998b).

<표> 귀하는 남북 통일 후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겪을 문화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남한과 북한에서는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2가지만 적어주세요)

순 위	질 문	응답수(명)
남한에서	1) 통일 후를 대비한 교육(민족성 강조교육)	24
	2) 무분별한 서구 문화 수입 억제	18
	3) 남북 교류	18
	4) 동포애	16
	5) 경제적 지원	10
	6) 황금 만능주의 탈피	8
	7) 기타	13
	8) 무응답자	24
북한에서	1) 교육 수준 향상 (우상화 교육 폐지)	36
	2) 자본주의 도입 · 개방	34
	3) 동포애	13
	4) 남한의 현실 인식	6
	5) 언어(영어 사용 허용)	4
	6) 기타	7
	7) 무응답자	31
		계 100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실제적인 남북교류와 경제적 도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우상화교육을 폐지하는 등 교육을 개혁하고, 남한의 현실을 인식시키고, 사회를 개방하며 자본주의화하고, 동포애를 강조하고 특히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통일과정이 어떠한지, 즉 평화적인 그리고 대화를 통한 통일과정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 외교적 상황이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에 대한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한다.

#### 4) 새로운 정체성

통일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념, 새로운 자존심 등에

대한 교육도 놓치면 안된다. 새로운 통일교육은 남북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드리되, 이를 상생의 원리로 상호 보완된 새로운 통합된 통일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교육방법은 새로운 정체성과 통일사회의 모습에 대해 토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① 통일한국의 새로운 체제, 새로운 헌법,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당, 새로운 사회기구와 조직 등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망하고,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념, 새로운 자존심 등에 대한 교육도 놓치면 안된다. ② 희망하는 바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갈지 그리고 ③ 그에 따른 가능한 혼란과 갈등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적인 해결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묻고 토론하고 해답을 찾아가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 5) 교류와 체험을 통한 교육

지식의 획득과 인격적 변화는 대화(의사소통, 정보교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해, 타협, 설득 등도 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명체가 건강하려면, 물질의 이동, 정보의 이동이 원활해야 한다. 통일도 결국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대화와 교류는 평화시에 가장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임은 자명하다. 대결, 긴장, 불안, 혼동 등의 상태는 대화와 교류를 장애한다. 따라서 통일교육도 대화와 교류를 통해 가장 잘 이루어 질 것이다.

통일교육에서 수업시간의 강의보다 체험을 통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과거부터 한없이 되풀이 되어온 설명과 주입식 교육보다 경험해 보고 느끼게 되는 즉 체험과 감성을 통한 지식이 참 지식이며,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힘을 발휘한다.<sup>50)</sup> 통일교육에 있어 체

50)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힘은 남북 청소년들의 대화와 교류의 체험일 것이다. 남북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서로 만나 대화하고 같이 생활해 봄으로써, 상대방을 가장 잘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우선 소규모로 진행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큰 규모로 확대해 나 가면 좋을 것이다.

#### 6) “가르치는 사람”의 준비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잘 준비시켜야 한다.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가르칠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같은 의미에서 일반 대중을 가르치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그들 자신이 우선 통일에의 열정이 있고, 남북사회에 대한 이해와 논리가 확립되어 있고, 또한 새로운 시각의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고 동의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가르치려는 사람은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감수성과 청소년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따뜻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하며, 인생에 있어 다양성을 용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어린 사람들과 즐겁게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리 청소년 전문가를 선택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다.

#### 7) 다른 분야의 통일과정과의 통합

통일을 위한 미래세대의 교육은 통일의 다른 분야, 즉, 정치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통일과정과 잘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전제조건은 국가가 하겠지만, 관련단체끼리의 협동정신이 없고, 협력할 능력이 없다면 모든 통일과정은 혼란스러워지고, 길어지게 되고, 쓸데없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합병증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sup>51)</sup> 특히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또한

51)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제4개정판, (서울: 일조각, 1999).

자발적 시민단체(NGO)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서도 우선 순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아와 임신부에 대한 영양공급은 당장 시급하다.

#### 8) 새로운 사람의 출현

모든 것이 순조로워 진정한 사람의 통일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면, 통일된 나라의 시민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이는 남북한 사람 각각의 좋은 점은 강화되고, 나쁜 점은 축소된 채, 다양한 성품이 조화롭게 통합된(integrated) 인격체, 새로운 사람이 출현할 것이다. 이는 남한 사람도 아니고, 북조선 사람도 아닌 진정한 “코리아인”일지도 모른다. 이 사람들은 과거 오랜 역사상 격변의 고통과 식민지적 압박을 견디어 왔으며,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냉전시대의 유산을 극복한 새로운 세계에 맞는 건강한 평화의 사람으로써 전 세계인의 모범이 될 것이다.

## VI. 연구의 계속: 통일학

통일 연구는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통일이 후의 상호적응과정 모두에 대해 확대,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예상되는 문화충격과 갈등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소 내지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임상정신의학에서 시행되는 행동장애나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이용하면, 문화충격, 갈등의 사회, 그리고 우울한 사회에 대해서도 어떤 치료방안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많은 연구를 요한다.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는 정치지도자 뿐 아니라 전체 남북한 사람이 모두 통일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고, 필요하다면

손해를 받아들일 각오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규모라도 사전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통일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인 바, 통일교육에 대한 각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단지 사람의 인격발달과정 중 소아청소년 집단만을 다루었다. 앞으로 성인, 노인, 여성, 기업인, 노동자, 지식인, 지도급 인사, 정치인 등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사람을 만들어 내는, 또는 인격이 발달하는 토양, 즉 남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낸 역사적, 지형학적, 이념적 그리고 정신분석학적 연구도 필요하다. 이로써 다름의 실체, 정도 그리고 그 이유까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름에 대한 깊은 통찰(insight)을 얻어야 통일 국가의 통합된 모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통일학”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학이나 남한학처럼 따로 연구하기 보다 상호 작용(적응)이라는 측면에서 통일학이라는 이름이 적절한 것 같다. 이러한 연구를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VII. 결 론

통일은 어려서부터 특정 이념에 사로잡혔던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 미래의 세대의 문제라는 것은 명백하다. 과거를 잊지는 말아야겠으나, 이제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안, 새로운 실천이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인 것은 확실하다. 청소년은 통일한국의 미래세대로서 장차 이루어질 통일사회의 주역으로 우리의 희망이다. 미래

세대를 통일에 준비시키는 일은 통일에 대한 준비의 핵심이며, 현재 사회의 역사적 사명이다.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북한 청소년들은 신체 발육과 인격발달이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이념적(사상성이 강함), 권위에 순응적, 집단적, 단순, 이타적, 복종적, 정보부족, 우정과 의리중시, 가난, 거친 생활 등이 특징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남한 청소년들은 신체적(체격은 크나 허약함)으로나 인격적으로 조숙한 편이며 따라서 실제적, 실용적, 시장적, 경쟁적, 개인주의적, 다양한 생활, 이기적, 반항적, 정보과잉, 섬세함(여림, 약함, 의존적) 등이 특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북한 사회의 이념, 사회체제와 문화, 교육, 적대적 감정 그리고 정보교류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차이는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래에 통일 후 남북 사람들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수 있는 집단적 갈등이 어떠한지 예측할 수 있다.

장차 평화적 통일과정과 건강한 통일사회를 이루어 내기 위해, 현재의 남북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미래 통일한국 사회의 시민으로 키워 낼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점에서 필자는 ① 시급한 북한 어린이에 대한 영양공급, ②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통일교육(통일의 당위성, 남북 각각의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 상대방의 사회에 대한 교육, 통일된 나라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개방적 토론 등등), ③ 실제 교류의 체험의 확대, ④ “가르치는 사람” 준비, 그리고 ⑤ 다른 분야의 통일과정과의 적절한 통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중에서 핵심은 아무래도 남북 각각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용납, 양(兩)극단을 극복한 새로운 통일철학과 새로운 시각의 통일교육과 직접적 교류의 체험의 확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의 통일을 위해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적 통일을 위해 연구와 교육에 노력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부정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통일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은 21세기 들어선 한민족의 역사적 도전이다. 이 도전을 잘 극복하면 우리 민족은 한번 더 도약적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 『청소년 체격조사』 1998.
- 김문환. “이질성을 용납하고 동질화로 나아가자.” 조선일보 1995년 8월 6일.
- 도홍열. “남북한 체제변화 과정과 주요 사회적 관행의 변동양상.”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서울: 한국정신문화원, 1994.
- 민경환. “심리적 관점에서 본 한국통일.” 『심리과학』 3권. 1999.
- 민병천.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0.
- 민성길·전우택.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심포지엄 발표논문. 1995.
- 민성길. “한(根)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6권. 1997.
- \_\_\_\_\_. “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문화충격과 적응문제.” 『통일 이후』 1권. 1998a.
- \_\_\_\_\_. “북한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개발연구 보고서. 1998b.
- \_\_\_\_\_. 『최신정신의학』 제4개정판 서울: 일조각, 1999.
- \_\_\_\_\_. 『통일과 남북청소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a.

- 민성길·전우택·윤덕룡. “북한 청소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 개발연구 보고서. 1998.
- 민성길. “북한사람의 삶의 질.” 『통일연구』 4권. 2000b.
- \_\_\_\_\_. “총론-결핍과 보완, 그리고 상생.” 『대한의학협회지』 44권. 2001.
- 박갑수. “북한사회의 집단적 개인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 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1998.
- 박명철. “주체철학의 이해와 평가.” 연세대학교 세미나 1999년 11월 22일.
-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서병철·전경수.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_\_\_\_\_.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1994.
- 성영신·성정희·심진섭. “남북한의 경제심리 비교.” 한국심리학회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
- 안찬일. “남북한 사회이질화 현상극복에 대한 소고.” 남북사회문화연구소 북한 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세미나. 1997.
-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1995.
-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1994.
- 이영선·전병재·함재봉.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 의식의 동질화 과제.” 『성곡논총』 제26집 별책. 1995.
- 이은죽.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참여.” 『북한연구』 1권.

1990.

이장호. 『통일의 심리학』 서울: 정도회, 2000.

이종석·김연철.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서울: 통일원 통일연구원, 1996.

이종훈.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 분석』 119호. 국회입법조사, 1996.

유도진. “청소년 조사.” 조선일보. 1997년 11월 25일.

윤덕룡·전우택·민성길. “독일통일에 있어 구 동독인의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보건기술 개발연구보고서. 1998.

전성우. “구 동서독 사회통합과정과 그 시사점.” 『통일경제』 11권. 1997.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_\_\_\_\_.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권 1호. 1997.

전우택·민성길. “탈북자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 “북한탈북자들의 남한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권 1호. 1997.

전우택·윤덕룡·민성길. “보호 경찰관의 탈북자 지원경험 분석.” 『신경정신의학』 40권. 2001a.

전우택·윤덕룡·민성길. “남한 비정부기구(NGO) 소속 자원 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분석.” (미발표 논문). 2001b.

전태국.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독일통일과 동구의 변혁』 서울: 한울, 1998.

제성호. “북한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7권 1호. 1996.

조남훈. “북한의 생식보건 실태.” 의협신보 1998년 5월 28일.

조선일보. “북 탈출보다 한국적응이 훨씬 힘들어 외국으로.” 2002년

4월 16일.

조선일보. “함남 함흥, 함북 무산 등 젊은이 폐싸움 줄었다.” 2002년  
4월 17일.

차재호. “통일에 있어 심리적 통합의 전망과 과제.” 2000년도 한국심  
리학회 춘계심포지움. 2000.

최 현 · 김이영. “청소년 성격 형성에 대한 남북한 비교 연구.” 한국  
심리학회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

각, 한스 위르겐. “독일에서 온 편지.” 조선일보 1997년 1월 14일.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 통일과 사회통합: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미  
래』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9.

한국청소년개발원. “국제화 시대의 청소년: 신세대 특성과 역할.” 토  
론회 자료집. 1994.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 1990.

한성열. “북한의 문화적 특성과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 2000년도 한  
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2000.

함재봉. “남북한 주민의 정치의식의 동질화 과제, 통일을 위한 남북  
한 주민의 의식구조 동질화 과제.” 연세대 동서문제 연구소  
북한 연구센터 학술회의. 1993.

Böhm J., Brune J., Floerchinger H., Helbing A, & Pinther A.  
*DeutschenStunden. Was Jugendliche von der Einheit denken.*  
Berlin: Argon Verlag GmbH, 1993.

Brofenbrenner U. *Two Worlds of Childhood: US and USSR.*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70.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8.

Freud S. *The Dissolution of the Oedipus Complex.* London: The  
Hogarth Press, 1924.

Genosko J. “Zwischenbilanz der inneren Einheit in Deutschland(독



- 일 내적통일에 대한 중간결산.” 한국사회학회 편. 『민족통일과 사회통합』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9.
- Grinker R. *Korea and its Future: Unification and Unfinished War*. London: McMillan, 1998. (한사랑민족통일 1998년 8월호에서 인용)
- Inhelder B. & Piaget J. *The Growth of Logical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Wiley, 1958.
- Kohlberg L. “Moral Stage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Lickona T.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New York: Leihart and Winston, 1976.
- Maaz H-J. *Der Gefühlsstau*. Berlin: Argon Verlag, 1990.
- Politt E. & Oh S. “Early Supplementary Feeding, Child Development and Health Policy.” *Food Nutr Bull* 15. 1994.
- Roger R. R., Bronfenbrenner U. & Devereux E. C. Jr. “Standards of Social Behavior among Children in Four Culture.” *Int J Psychol* 3. 1968.
- Shell J. *Lebenslagen: Orientierungen und Entwicklungsperspektiv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Opladen, 1992.
- Triandis H. C.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0.
- EU, UICEF, WFP. “DPRK Nutrition Survey: A Study Undertaken in Collaboration with Government of DPRK.” 1998.